

“AI 기술 확보가 곧 경쟁력... 고객 감성까지 케어”



하현회 부회장 비즈니스 모델 발굴

구글 등 글로벌 기업부스 집중탐방
미래 발전에 대한 인사이트 구상
공공장소 맞춤형 AI 서비스 관심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을 찾아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자율이동의 융합에서 이동사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섰다.

하 부회장은 7일(현지시간) LG전자 부스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파나소닉, 구글 부스를 연이어 방문, AI기반 통합 솔루션 기술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인사이트를 구했다고 8일 밝혔다.

7일 가장 먼저 방문한 LG전자 부스에서는 AI 기반의 안내와 서빙 로봇, 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왼쪽 네번째)이 7일(현지시간)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0 센트럴홀에 위치한 LG전자를 방문, LG G8X 싱큐와 듀얼 스크린을 살펴보고 있다. /LG유플러스

리오 바리스타 로봇, 가상 의류 피팅 솔루션 등 공공장소에서의 맞춤형 AI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며, AI를 기반으로 연동되는 홈 가전기와 모빌리티 등 확장성에 대해 세심하게 살폈다.

하 부회장은 “AI 기반의 가전기기, 모빌리티 등이 고객의 일상을 크게 바

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고객의 감성까지 케어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가 곧 경쟁력으로 직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 부스를 찾은 하 부회장은 구글 어시스턴트(음성비서)를 주축으로 가정과 자동차, 스마트폰에서 끊임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우)과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좌)이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선보인 5G(5세대) 이동통신 기반의 ‘디지털 콕핏 2020’을 체험하고 있다.

없이 연동되는 스마트홈 라이프를 체험했다.

하 부회장은 구글 아시아퍼시픽 어시스턴트 디스트리뷰션 총괄 클레어우를 만나 “100만 이상의 홈 IoT 가입자를 보유한 LG유플러스의 경쟁력과 스마트홈 라이프를 구현하는 구글과의 협업은 고객에게 차별적인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 부회장은 이어 모빌아이(인텔)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CES 2020의 메인 키워드인 자율이동(Autonomous mobility) 전산업체를 찾아 기술 및 서비스 현황, 플랫폼 등을 직접 체험했다.

부품 기업에서 자율주행 솔루션 제공기업으로 성장한 모빌아이 부스에서는 자율주행 솔루션 상품(ADAS) 개발 현황과 맵핑 기술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대자동차와 현대차 그룹 내 모빌리티 핵심기업인 현대모비스 부스를 연이어 방문 모빌리티 컨셉트카와, 개인 비행체(PAV), 로보택시 등의 기기를 중심으로 자율이동과 모빌리티 솔루션 개발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폈다.

8일(현지시간)에는 지난해 국내 독점으로 도입한 Nreal사의 AR 글래스 분야의 ‘100인치 대화면 시청’, ‘360도 AR 콘텐츠’와 모빌이 착용한 가방이나 옷을 직접보고 구매할 수 있는 ‘AR 쇼핑’, ‘AR 게임’ 등 AR 서비스와 새로운 UI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지난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20 내 SK그룹 전시관 모습. /SKC

세계서 가장 얇은 ‘4μm 동박’ 모빌리티 소재 시장 先 공략

〈2차전지 음극 소재〉



차량경량화 소재, PCT 필름 상용화
투명 PI 필름·친환경 폴리우레탄 소재

SKC가 CES 2020에서 모빌리티 소재를 선보였다.

SKC는 지난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0에서 고부가·고기능 모빌리티 소재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모빌리티를 반도체·친환경·디스플레이와 함께 주요 성장 축으로 삼은 SKC는 이번 CES 2020에서 모빌리티 소재 기업으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SKC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소재인 배터리 음극재 소재 동박, 경량화 소재 PCT 필름, 미래 디스플레이 소재 투명PI 필름, 자동차 내장재용 친환경 폴리우레탄 등을 소개했다.

2차전지 음극 소재로 쓰이는 동박은 배터리 고용량화와 경량화로 이어지는 모빌리티 핵심 소재다. 얇을수록 전지에 많은 음극 활물질질을 채울 수 있어 얇

게 만드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월 7일 SKC의 100% 투자사로 새출발한 KCFT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4μm 동박을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차량 경량화 소재인 PCT 필름은 SKC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제품이다. 열과 습기, 알칼리에 강하고 절연 성능이 뛰어나 차량용·특수산업용·5G케이블용 소재로 쓰인다. 특히 PCT 필름으로 만든 FFC(Flat Flexible Cable)로 두꺼운 차량 내 구리선 케이블과 잘 휘지 않는 ‘배터리 버스바(busbar)’를 대체할 경우 구리 사용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 차량 경량화가 가능해진다.

투명 폴리이미드(PI) 필름은 미래 자동차 내부 곳곳의 디스플레이에 쓰일 수 있다. 유리처럼 표면이 딱딱하면서도 깨지지 않고 잘 접하는 특성 때문에 폴더블, 롤러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로 각광 받는 투명PI 필름은 미래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 소재로도 관심 받고 있다.

SKC는 합작사 MCNS의 자동차 내장재용 친환경 폴리우레탄 넥스티올도 선보인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미래 자율주행의 ‘눈’... 단일 광자라이더 첫 선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감지하고 3D 영상 모델링 기술〉



홍콩 전기차 업체 바이톤과 MOU
차량 개발·마케팅 등 서비스 협력

광자 라이더로 기존 라이더 한계 극복

SK텔레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전자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차세대 모빌리티 협력에 나선다. 차세대 전기차 출시 협력 뿐 아니라 미래 ‘자율주행 눈’이라 불리는 단일 광자 라이더도 선보일 방침이다.

SK텔레콤은 7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CES 2020 현장에서 SK텔레콤 유영상 MNO사업부장과 바이톤 다니엘 키르헤르트 CEO가 참석한 가운데 바이톤의 한국 출시 전기차 대상 양사의 포괄적인 협력을 목표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바이톤은 BMW, 닛산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 출신 핵심 인력들이 2017년 홍콩에 설립한 전기차 업체다. 양사 협력은 차량 내부 통합 IVI 개발과 적용, 마케팅 지원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IVI란, 차량 탑승자를 위한 주행정보와 즐길 거리를 통칭하는 용어다.

SK텔레콤은 자사의 ‘통합 IVI’ 서비스가 48인치 초대형 곡선형 터치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디지털 활용 환경을 갖춘 바이톤 차량과 만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K텔레콤은 이번 CES에서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T맵’과 음원 서비스인 ‘플로(FL O)’ 및 각종 동영상 등을 차량 기본 탑재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 IVI’ 시스템을 선보이기도 했다.



SK텔레콤 유영상 MNO 사업부장(왼쪽)과 바이톤 다니엘 키르헤르트 CEO가 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0 현장에서 차세대 전기차 한국 출시를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골자로 MoU를 체결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이 CES 2020 전시 부스에서 공개한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 시제품.

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향후 다양한 분야에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이번 CES 2020에서 글로벌 전자기업 파이오니아 스마트 센싱 이노베이션스(PSSI)와 양사의 핵심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 시제품을 공개했다. 양사는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라이더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 공동 개발을 진행해 왔다.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는 PSSI의 2D MEMS 미러 스캐닝 기술과 SK텔레콤의 양자 센싱 핵심 기술인 ▲1550나노미터(nm) 파장 레이저 모듈 ▲단일 광자 포토 다이오드(SPAD) 기술 등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높은 해상도를 확보해 명확한 물체 인식이 가능하고, 빛의 반사도가 낮은 물체도 정확하게 탐지해 기존 라이더의 인식 한계를 극복했다는 설명이다. 눈이나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

향후에도 SK텔레콤은 PSSI와 양사의 핵심 요소 기술을 결합, 지속 협력해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더 센서를 더욱 고도화 시킬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